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CONTENTS

- 중국 외자 감소 속 서비스업 문턱 낮춘다...투자 신뢰 회복 시도
- 中 휴머노이드 로봇에 '디지털 신분증' 부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추적
- 中 'AI+소비' 추진 정책 발표...AI를 새 소비엔진으로 육성
- 中 '15·5' 취업 청사진 공개...AI·신흥산업 등 10대 취업 분야 제시
- AI 최상위 학회서 드러난 미·중 경쟁...美는 머신러닝, 中은 컴퓨터비전



본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리·작성한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KOSTEC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01 중국 외자 감소 속 서비스업 문턱 낮춘다…투자 신뢰 회복 시도

정리 (miouly@kostec.re.kr)

■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외자 활용 안정화·질적 향상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금융·의료 분야 개방 확대, 외자기업 재투자 지원,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리 개선, 외자기업 내국민 대우 강화 등을 추진 (6.22)

● (배경) 이번 방안은 ‘15차 5개년 계획’ 시작 시점에 발표된 외자 안정화 정책으로, 외국인투자 감소세를 완화하고 외자 유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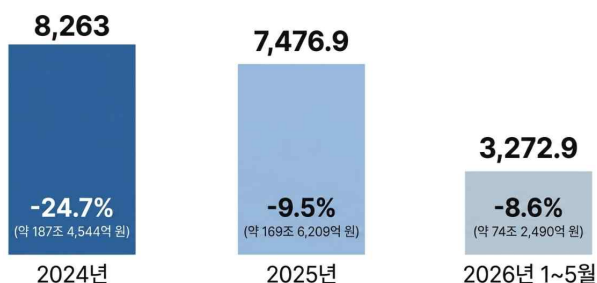
- 중국의 실제 외자 도입액(FDI)은 2024년 8,263억 위안(약 187조 4,5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감소했고, 2025년에도 7,476.9억 위안(약 169조 6,209억 원)으로 9.5% 감소함

* 외국인투자기업 신설 수는 2025년 7만 392개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 2026년 1~5월에도 2만 5,297개로 5.3% 증가해, 투자 건수는 늘지만 투자 규모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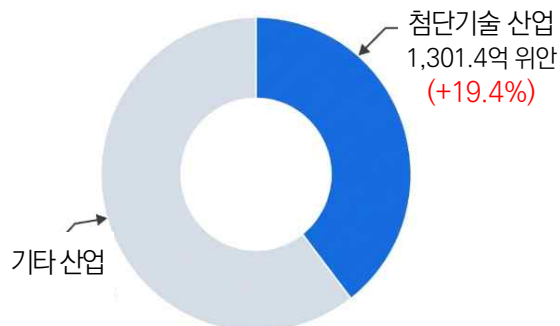
- 26년 1~5월 실제 외자 도입액은 3,272.9억 위안(약 74조 2,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 다만 26년 1~5월 중국 첨단(고기술) 산업 외자 도입액은 1,301.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으며, 전체 외자 도입액 내 비중은 39.8%로 9.4%p 상승

〈중국 실제 외자 도입액(FDI) 추이〉



〈2026년 1~5월 중국 첨단 산업 외자 도입 비중*〉



* 출처 : (26.01.24, 新浪财经) 2025年全国实际使用外资金额7476.9亿元 同比下降9.5% 등 자료를 바탕으로 KOSTEC 작성

● (내용) 방안은 시장 진입 확대, 외국인투자 편의 제고, 투자 유치 수준 제고, 외국인투자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외자 관리 최적화 등 5대 분야에서 15개 조치를 제시함

- 특히 교육·금융·의료 등 진입 장벽이 높았던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제시됨

- 또한 외자 M&A 제도 개선과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리 개선을 통해 외자기업의 투자·경영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 반영됨

〈‘외자 활용 안정화·질적 향상 행동방안’ 5대 분야 주요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시장 진입 확대 (제1~3조)	- 서비스업 개방 확대 : 이공·의학 분야 대학에 대한 외자 개방 시범 확대해, 북경은 디지털경제, 의학 등 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시범을 추진하고, 홍콩·마카오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업 우선 개방 확대 - 금융업 개방 확대 :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 등 위험관리 수단 활용, 펀드 투자자문 업무, 중점 외자기업의 중국 내 상장·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국경 간 융자 편의 한도를 제공 - 의약산업 외자 참여 지원 : 의약품 분할 생산 세칙을 마련해 바이오의약품·화학의약품의 국경 간 분할 생산을 지원하고, 바이오기술·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시범 지역을 확대함.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의 중국 시장 진입과 소매 유통채널 진입도 지원
외국인투자 편의 제고 (제4~7조)	- 외자 M&A 제도 개선 :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기업 인수합병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조건을 갖춘 외자 지분투자기관이 전략투자자로 상장회사 증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데이터 국외 이전 관리 개선 : 자유무역시험구와 서비스업 개방 시범도시에서 시나리오별·필드별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공업, 통신, 자동차, 의학, 종자, 우주항공 등 분야의 중요 데이터 식별 기준 제정을 추진함 - 중국 내 재투자 촉진 : 해외 투자자가 배당 이익을 중국 내에 직접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더 많은 재투자 프로젝트를 중대·중점 외자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 - 외자 R&D센터 유치 확대 :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 개방형 혁신 플랫폼과 실습훈련기지 설립, 신형 R&D 기관 육성, 연구성과 사업화, 수입 연구용품 세제 혜택을 지원
투자 유치 수준 제고 (제8~10조)	‘투자 중국’ 브랜드 강화 : 외국인투자 종합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과 ‘투자 중국’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제공, 상담, 전문 지원, 피드백 기능을 통합함 - 지방정부 투자유치 규범화 :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장려·금지 목록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 약속 이행을 강화함. 외국인투자 촉진 성과 평가 시범 경험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제11~13조)	- 내국민 대우 이행 : 외자기업에도 기업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조달, 입찰, 대학·연구기관 구매 활동에서 외자기업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함 - 소비 진작 정책 참여 : 외자기업이 녹색소비,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 등 소비 촉진 정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외국 브랜드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온라인 권익 보호 :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체계를 개선해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 프로젝트 지원 강화 : 중서부 지역 외자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기업 애로사항을 단서 수집-문제 처리-결과 피드백 방식으로 관리
외자 관리 최적화 (제14~15조)	- 지역 간 유치 협력 : 동부 지역과 변경 지역의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 산업 이전, 수익 배분 협력을 확대하고, 국경 간 경제협력구와 주변국의 공동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 - 정보보고 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제도와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 외환 등록, 행정허가, 고정자산 투자 등 외자 관리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

참고자료

☞ (26.06.22, 中国财经报) 事关外商投资, 三部门发布15条新举措!

https://mp.weixin.qq.com/s/mJdVjNFGp3ktPnDE4revw?click_id=1669810923

☞ (26.06.22, 新华网) 利用外资固稳促优 多部门详解政策措施

<https://www.news.cn/20260622/11befa2863ce4bd7b74a62e631758bec/c.html>

02 中 휴머노이드 로봇에 ‘디지털 신분증’ 부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추적

정리 (miouly@kostec.re.kr)

■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빠른 확산에 대응해 로봇별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생산·판매·운영·유지보수·폐기·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함

- (정책 배경) 이번 제도는 공업정보화부 산하 휴머노이드 로봇·인바디드 AI 표준화기술위원회 (2025.12)가 주도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 생애주기 관리 규범’을 기반으로 추진됨
 - 해당 규범은 2026년 5월 22일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발표된 단체표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같은 날 [중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 플랫폼](#)도 정식 운영을 시작함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 현황〉

- (산업 배경)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2025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이 양산과 현장 적용 단계로 이동하면서, 개별 로봇 단위의 등록·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음
- 2025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82.39억 위안(약 1조 8,666억 원)으로, 글로벌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2025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출하량은 약 1.44만 대로, 글로벌 출하량의 84.7%를
 - * 중국 로봇 기업 Unitree Robotics, AgiBot, Leju Robotics, Booster Robotics, Songyan Dynamics, UBTECH가 글로벌 출하량 상위 6개사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74.1%에 달함

■ 디지털 신분증 제도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29자리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제조기업, 제품 모델, 개별 로봇 정보를 확인·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코드 구성) 식별코드는 [국가코드](#), [기업명 코드](#), [제품모델 코드](#), [일련번호](#)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됨
 - 한 번 부여된 코드는 로봇의 R&D, 생산, 판매, 사용, 유지보수, 폐기, 재활용 단계 전반에 활용됨
 - 현재까지 100여 개 기업, 200여 개 모델, 2.8만여 대 로봇이 플랫폼에서 코드 등록을 완료함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신분증 29자리 코드 구성〉

구분	자리 수	주요 내용	기능
 국가코드	2자리	국가·지역 식별	생산지 확인 및 해외 추적 기반
 기업명 코드	4자리	제조기업 식별	책임 주체 추적
 제품모델 코드	6자리	제품 모델 및 기술 특성 식별	제품 유형과 출고 정보 확인
 일련번호	17자리	동일 모델 내 개별 로봇 식별	개별 기기 단위 추적

- **(관리 범위)** 디지털 신분증은 단순한 제품 번호가 아니라, 로봇의 전 생애주기 데이터를 연결하는 관리 수단으로 설계됨

- R&D, 생산, 판매, 사용, 유지보수, 폐기, 재활용 등 전 과정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관절 마모, 배터리 상태, 유지보수 기록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적 정보도 추적 가능

* 즉 제조사, 서비스 제공업체, 판매자, 사용자, 재활용 업체 등 산업망 전반의 주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제품 모델, 개별 로봇 정보를 확인해 책임 주체를 추적할 수 있음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구분	기존 문제	제도 도입 후 변화
제품 식별	기업별 자체 코드 중심	국가 차원의 통일 식별코드 부여
안전관리	사고·고장 원인 추적 어려움	개별 로봇 단위 이력 추적 가능
책임소재	제조·사용·서비스 주체 간 책임 구분 모호	기업코드와 제품코드를 통해 책임 주체 확인
생애주기 관리	생산·판매 이후 관리 단절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관리
해외 진출	국가 차원의 추적 기반 부족	국가코드 기반의 해외 추적·인증 기반 마련

〈참고 : 주요국 휴머노이드 로봇 관리제도 현황〉

- ▶ **(글로벌 현황)** 주요국은 AI 안전과 고위험 AI 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에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전용 등록제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유럽연합은 ‘AI 법’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과 규제체계를 마련했으나, 이는 로봇 외형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됨
- 미국은 연방 차원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록제도가 없으며, 일부 주에서 AI 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수준임
- 일본은 2025년 AI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법제를 마련했으나,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식별코드 제도는 도입하지 않음
- 한국은 2026년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며 고영향 AI의 투명성, 신뢰성,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로봇 개별 기기 등록제도는 아직 연구 단계로 평가됨

출처 : (25.09.09, stli.iii) Shifting AI Governance in East Asia, (26.01.21, skwschwarz) Physical AI and Humanoid Robots as a New Regulatory Reality 등 자료를 바탕으로 KOSTEC 정리

참고자료

- ☑ (26.06.10, 新浪科技) 人形机器人拥有“身份证”·行业探索全生命周期管理
<https://finance.sina.com.cn/tech/roll/2026-06-10/doc-iniawpzmz4614332.shtml>
- ☑ (26.05.27, 人民网) 人形机器人有了统一“身份证”
<http://finance.people.com.cn/n1/2026/0527/c1004-40728348.html>
- ☑ (26.05.12, 央广网) 人形机器人“身份证”要来了! 29位4部分 比人类身份证多11位
https://www.cnr.cn/hubei/jcxs/20260512/t20260512_527617948.shtml

03 中 ‘AI+소비’ 추진 정책 발표…AI를 새 소비엔진으로 육성

우만주 (yumanshu@kostec.re.kr)

- 최근 중국 상무부 등 8개 부처*는 AI를 스마트 단말·로봇 등 신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가정·양로·관광·교육·전자상거래·물류 등 일상 소비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AI+소비’ 추진 방안 발표(26.6.18)

* 상무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주택도농건설부, 문화·관광부

- (추진 배경) 중국 국무원은 ‘AI+’ 행동계획(25.8)을 통해 ‘AI+소비 혁신’을 6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AI와 소비 분야의 융합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
 - 이번 의견은 국무원의 ‘AI+’ 행동계획과 소비 진작 특별 행동방안을 소비 분야에서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AI 산업 육성과 내수 확대를 동시에 겨냥함
- (주요 내용) 이번 의견은 ▲제품 소비, ▲서비스 소비, ▲상업 혁신, ▲응용 확산, ▲소비 환경 등 5개 분야의 17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AI가 일상 소비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추진

〈5대 분야의 중점과제〉

구분	주요 내용
1. AI+ 제품 소비	- AI 스마트폰·PC·TV, 스마트 가전, 스마트 조명 등 차세대 스마트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전자·가전제품의 교체 수요를 촉진 - AI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 현실(MR)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 개발을 추진 - 지능형 커넥티드카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차량용 스마트 단말 소비를 확대해 ‘사람·차량·홈’을 연결하는 스마트 제품 생태계를 구축 -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바이오닉 로봇 등 소비용 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고, 고령층·아동 대상 돌봄 로봇·반려 로봇·AI 생활보조 제품의 시범 적용 확대
2. AI+ 서비스 소비	- 스마트 청소 로봇,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주방기기 등을 보급하고, AI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등 신규 가정 서비스 모델 확산 - 전국 양로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정의 스마트화·고령자 친화형 개조 지원 - AI를 관광 일정 설계, 티켓 예매, 관광 안내, 호텔 예약, 교육용 대형언어모델, AI 학습 도우미·교사용 보조도구 등 서비스 전반에 적용
3. AI+ 상업 혁신	- 스마트 소매 발전과 노후 쇼핑몰·보행 거리·상권의 스마트화 개조를 추진 - 농산물 도매시장, 전통시장, 상품거래시장 등 상업 시설의 지능화 전환을 지원 - 전자상거래 운영·고객 응대·디자인·마케팅·라이브 커머스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디지털 휴먼·가상 체험·AI 추천·콘텐츠 자동생성 등을 확산
4. AI+ 소비 확산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AI+소비’ 전용관을 개설 지원 - 국제소비도시, 국가 AI 혁신응용 선도구를 중심으로 ‘AI+소비’ 시범구역과 체험센터를 조성 - 상업 복합시설, 보행거리, 관광지, 박물관, 양로원 등에서 AI 제품의 임대·공유·시범 사용 모델을 도입 ‘AI+소비’ 응용 시나리오 구축 지침, 대표사례 선정, 국가급 AI 응용 테스트 베드 구축, 수급 매칭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비 시나리오의 상용화 추진

구분	주요 내용
5. AI+ 소비 환경	· 'AI+' 행동에서 제시한 차세대 스마트 단말 소비를 중점 지원 · 국가 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의 역할을 활용해 'AI+소비' 발전을 지원 · '차량-도로-클라우드 일체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능형 커넥티드카·도시 무인 배송차에 필요한 스마트 도로변 인프라, 엣지 연산력, 교통안전 종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 (대표사례)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이 선정한 2026년 'AI+소비 사례'에는 로보락 청소로봇, 갈봇 스마트 약국, 텐원 AI 쇼핑, Kimi×Manner Coffee 등이 포함됨

기업	적용 사례	주요 내용
 로보락(石头科技)	AI 청소 로봇 G-Rover	· 세계 최초 바퀴-다리 형 청소 로봇을 출시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지형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복잡한 주거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청소 로봇을 평면 청소 기기에서 입체 공간 대응형 가정용 로봇으로 고도화
 갈봇(银河通用)	스마트 약국	· 전국 최초로 「의약품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로봇 약국으로, 로봇을 활용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스마트 약국 모델을 구현 · 70㎡ 규모의 표준 약국 공간에서 5,000종 의약품 SKU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로봇 기반 상업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
 천문(千问)	AI 쇼핑	· '춘절 손님맞이' 프로젝트는 9시간 만에 AI 주문이 1,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한마디 주문' 방식은 기존 구매 절차보다 단계를 50% 이상 줄였음 · 60세 이상 이용자 400만 명 이상이 처음으로 AI 쇼핑을 경험했고, 주문의 절반 가까이는 현금 도시에서 발생
 Kimi × Manner Coffee	AI+커피 소비	· Kimi와 Manner Coffee는 AI 기능을 커피 구매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오프라인 소비 응용 시나리오에 접목 · 콜라보 컵홀더와 굿즈가 3시간 만에 매진되며, AI를 추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으로 전환한 사례임
 천원스마트(千寻智能) × 징둥	로봇 커피 서비스	· 징둥MALL 매장에 임바디드 AI 로봇 Moz를 배치해 로봇 기반 커피 제조 서비스를 제공 · 오프라인 유통 공간에서 로봇 서비스와 실제 소비 데이터를 결합하는 AI 소비 실증 사례로 평가
 아너(Honor)	Robot Phone	· 로봇형 스마트폰을 통해 휴대폰을 단순 통신·촬영 기기에서 능동형 AI 파트너로 전환 · 임바디드 AI 상호작용과 고급 이미지 기능을 결합해 차세대 AI 단말 소비의 대표 사례로 제시

*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859740287778194943&wfr=spider&for=pc>

참고자료

☞ (26.06.18, 商务部) 商务部等8部门关于加快“人工智能+消费”发展的实施意见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6/content_7072672.htm

☞ (26.06.22, 大象新闻) 八部门发文促进“人工智能+消费”

<https://baijiahao.baidu.com/s?id=1868662641438552488&wfr=spider&for=pc>

04 中 ‘15·5’ 취업 청사진 공개…AI·신흥산업 등 10대 취업 분야 제시

우만주 (yumanshu@kostec.re.kr)

- 중국 국무원은 「‘15·5’ 취업 우선 전략*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제조업·대외무역 등 기존 고용 기반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흥산업·인공지능(AI) 등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진

* 취업 우선 전략은 경제·산업·지역 정책을 추진할 때 성장률이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실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효과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의미

- (주요 목표) ‘15·5 계획’ 기간 중국은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처음으로 고정된 KPI로 제시하지 않고, 연도별 상황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세부 목표로 ▲도시 조사실업률 연평균 5.5% 미만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GDP 성장률 상회 ▲2030년 기술인재 취업자 비중 35% 등을 제시

〈15.5 계획 기간 중국의 취업 목표〉



- (10대 분야) 이번 정책에서는 ‘15·5’ 기간 제조업·대외 무역·공정 건설 등 기존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흥산업·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계획

〈15.5 계획 기간 주요 취업 분야〉

분야명	주요 내용	분야명	주요 내용
제조업	전통 제조업의 고용 기반을 유지하고, 경공업·섬유 등 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채용 확대	문화·관광·스포츠	공연, 게임·애니메이션, 웹문학, 스포츠 행사 등을 키워 관련 취업·창업 확대
대외무역	신흥시장 개척과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내수·수출 연계로 통해 고용 수요 안정화	숙박·외식	지역 특색 외식 브랜드와 숙박 산업태를 육성해 고용 공간 확대
중대 공정	도시재생, 스마트·녹색 건설, 교통·수리·신형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일자리 발굴	생산성 서비스	첨단제조업·현대농업과 연계된 기술서비스, 물류, 소프트웨어 등 고급 일자리 창출
가사서비스	노인돌봄, 산모·영유아 돌봄, 생활지원, 청소 등 생활서비스 일자리 확대	신흥 산업	기술개발·공정응용 전문직을 늘리고, 엔지니어·융합형 인재 등 신직업 육성
양로·보육	지역사회 돌봄, 재활간호, 의료연계, 보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개발	인공지능	AI 분야 신규 일자리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 기회 확대

■ (AI와 고용) 이번 정책은 처음으로 ‘AI 발전에 대응한 취업 촉진 행동’을 별도로 추진 과제로 제시

- (3대 계획) AI 발전에 대응한 취업 촉진 행동은 ① AI 일자리 창출 계획, ② 전통산업의 AI 취업 잠재력 발굴 계획, ③ 노동자 직무전환 지원 계획 등 3대 행동계획으로 구성
 - (AI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에 혁신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신흥산업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공간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둠

〈참고: 농촌 지역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

- ▶ (사례 1) 2년 전만 해도 허난이성 푸양(濮阳) 지역에서는 ‘인공지능 훈련사’가 생소한 직업이었으나, 2026년 현재 푸양(濮阳) 화룽구(华龙区)에는 관련 데이터 라벨링 기업 13개를 유치하여 약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
 - 2025년에는 전체 산업 망 매출이 3.6억 위안(약 773억 원)에 달했으며, 성급 고급 데이터 라벨링 산업단지 조성에도 성공
- ▶ (사례 2) 산시성 이진현(宜君县)의 AI 라벨링 프로젝트 종사자의 70% 이상은 인근 농촌 여성, 육아 여성, 귀향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농업 중심의 전통 노동에서 컴퓨터 기반 디지털 업무로 전환하고 있음
 - 현재 이진현은 디지털경제 혁신센터를 구축했으며, 누적 60.7만 건 이상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완료했음
 - 이를 통해 3,500만 위안(약 75억 원) 이상의 생산액을 창출하고,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이끌어냈음



* 출처: <https://mp.weixin.qq.com/s/wkixlgoBSA2zlSHCXtDHbA>

- (전통산업의 AI 취업 잠재력 발굴 계획) AI를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고, 기존 산업 안에서도 새로운 고용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임
- (노동자 직무전환 지원 계획) AI 기본지식과 관련 기술 역량을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에 포함하고, AI 직무훈련과 부족 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
- (전문가 해석) 중국 언론에서는 AI 시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초급 사무직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생길 수 있다고 해석

참고자료

- ☞ (26.06.17,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实施就业优先战略“十五五”规划》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606/content_7072481.htm
- ☞ (26.06.17, 中国政府网) 未来5年，找工作关注这些行业领域！
https://www.gov.cn/zhengce/202606/content_7072558.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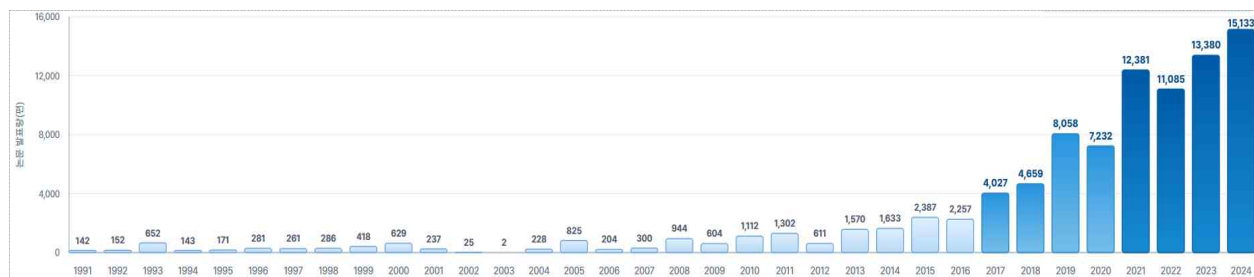
05 AI 최상위 학회서 드러난 미·중 경쟁...美는 머신러닝, 中은 컴퓨터비전

우만주 (yumanshu@kostec.re.kr)

- 2015~2025년 동안 AAAI, NeurIPS 등 AI 분야 7개 최상위 학회* 논문 발표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글로벌 AI 연구의 미·중 G2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음

* AAAI, NeurIPS, ACL, CVPR, ICCV, ICML, IJCAI

- (글로벌 추세: AI 최상위 연구 급증) 중국과학원 문헌 정보센터 「과학관찰」 통계에 따르면, AI 분야 7대 최상위 학회 논문 누적 발표량은 2015년 2,387건에서 2024년 15,133건으로 급증
 <AI 분야 7대 국제 최상위 학회 논문 발표량 변화추이(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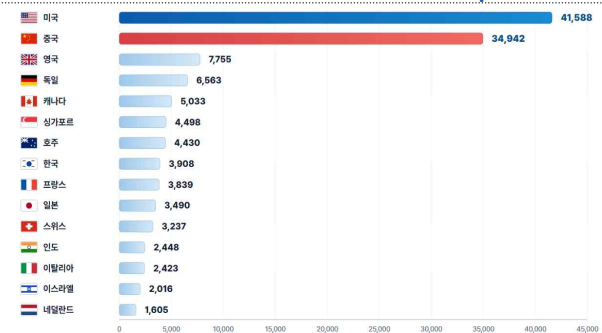


- (미·중 경쟁: 中 양적 1위, 美 질적 1위) 중국은 전체 AI 관련 논문 수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양적 우위를 확보했으나, AI 최상위 학회 논문 누적 발표량 기준으로는 미국이 41,588건으로 1위, 중국이 34,942건으로 2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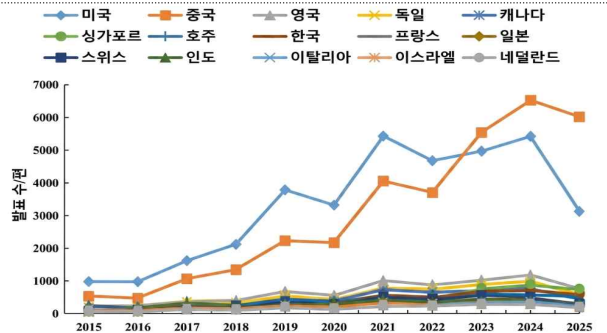
* 「Science」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AI 관련 논문 발표량은 23,695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6,378건)·영국(2,747건)·EU(10,055건)의 합산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임

- (미국의 안정 성장) 미국의 연간 논문 발표량은 2015년 954건에서 2025년 3,150건으로 약 3.3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CAGR)은 약 15.0%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 (중국의 고속 추격) 중국은 같은 기간 498건에서 6,11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미국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장 속도를 보임

<AI 분야 7대 최상위 학회 논문 발표량 Top15 국가>



<국가별 논문 발표량 변화 추이(15~25)>



- (분야별 판도: 美 기초, 中 응용) AI 분야 7대 최상위 학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논문 발표를 주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미국이 기초·이론 연구, 중국이 응용 중심 연구에서 강점을 보임
- 미국은 NeurIPS(머신러닝)와 IJCAI(AI 종합)에서 우위를 보이며, 머신러닝 이론·AI 알고리즘에서 여전히 탄탄한 연구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CVPR·ICCV·ECCV 등 컴퓨터 비전 분야 주요 학회에서 미국보다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ACL(자연어처리)에서도 미국을 소폭 앞서며 응용연구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 중

〈AI 최상위 학회별 미·중 경쟁 구도〉

학회명	1위 국가		2위 국가		주요 특징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 수	
NeurIPS (머신러닝)	미국	6,477건	중국	2,549건	• 머신러닝 이론 분야의 대표 학회로, 미국은 중국의 약 2.5배 수준의 논문을 발표
AAAI (AI 종합)	미국	6,609건	중국	6,510건	• 종합 AI 학회로서 양국 모두 AI 전반에서 대규모 연구 생산력을 보유
IJCAI (AI 종합)	미국	2,889건	중국	700건	• 종합 AI 학회이지만 미국의 우세가 크며, 전통 AI 학회에서 미국의 학술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함
ACL (자연어처리)	중국	4,203건	미국	3,693건	• 중국의 연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계 번역·중국어 정보처리 등 연구 수요와 투자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CVPR (컴퓨터비전)	중국	7,138건	미국	7,065건	• 양국 모두 압도적 규모를 보이며 사실상 미·중 양강 구도 형성
ICCV (컴퓨터비전)	중국	2,886건	미국	2,567건	• 최상위 컴퓨터비전 학회 중 하나로, 중국은 컴퓨터비전 분야 전반에서 강한 연구 경쟁력을 보임
ECCV (컴퓨터비전)	중국	2,621건	미국	1,558건	• 컴퓨터비전 3대 학회에서 모두 중국이 주도하며, 특히 ECCV(68%)에서 우위가 가장 뚜렷함

참고자료

☞ (26.06.21, 科学观察) 国际人工智能领域顶会视角下的科研态势与区域发展分析
<https://mp.weixin.qq.com/s/m7OpstqFiqVAFADKKAEnLw>

최근 이슈리포트 발간 리스트

순번	제목	시기
1	‘14·5규획’과 중국 과학기술 성과 - 정책, 생태계 및 혁신체제로 본 중국의 과기혁신 성과 -	26.05.12
2	제15차 5개년 규획과 중국의 산업·과학기술 재건	26.03.21
3	양회(兩會)에서 제시된 2026년 중국 과기혁신 과제	26.03.21
4	제15차 5개년 규획으로 본 중국의 전략 대전환 - 중국은 다음 5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	26.03.06
5	빅사이언스로 보는 중국 과학기술 자립의 엔진 - 10대 중추 인프라 구축 동향을 중심으로 -	26.02.12
6	중국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전주기 파이프라인 : 조기 영재교육 → 대학 엘리트 트랙 → 해외 인재 유치	26.02.09
7	중국은 무엇을 성과로 제시하는가 - 관용 매체 발표로 본 과학기술 혁신 성과 -	26.01.23
8	중국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의 현재 좌표와 기술은? - 산업별 현황·지역 분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	26.01.23
9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③ : 연구개발 성과	25.11.07
10	중국 ‘제14차 5개년 규획’의 성과와 전망	25.10.24
11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② : R&D 인력	25.10.24
12	중국 R&D 생태계 :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25.10.24
13	중국 전자상거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 Temu·SHEIN·AliExpress·TikTok Shop을 중심으로 -	25.09.19
14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R&D예산)	25.09.09
15	미·중 경쟁의 새 전장,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혁신	25.09.02
16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국제 비교	25.08.22
17	2021~2025년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지형변화	25.07.31
18	딥시크 이후, 진격의 중국 AI	25.07.30
19	기술패권 흔들리나…中, AI에서 우주까지 美 맹추격	25.06.20
20	중국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정책과 10년의 성과	25.06.17

주간동향 기사 분류 체계

중국 14.5 계획 (중국 국무원, '21.3월)	중국 6대 미래 산업 (중국 공신부 등 7개 부처, '24.1월)		한국 12대 전략기술 (한국 과기정통부, '23.12월)
1. 차세대 인공지능 2. 직접회로 3. 양자정보 4. 뇌과학 및 뇌모방 연구 5. DNA 및 바이오 기술 6. 임상 의학 및 건강 7. 심공, 심지 및 극지	1. 미래제조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레이저 제조, 순환 제조, 공유 제조, 스마트 제어/센싱, 산업 인터넷, 메타버스 등	1. 인공지능 2. 첨단 로봇/제조 3. 차세대 통신 4. 반도체/디스플레이 5. 사이버 보안 6. 양자 7. 첨단 모빌리티 8. 수소 9. 이차전지 10. 차세대 원자력 11. 우주항공/해양 12. 첨단 바이오
	2. 미래정보	차세대 이동통신, 위성 인터넷 양자정보, 양자/광자 컴퓨팅 대규모 언어 모델 등	
	3. 미래재료	비철금속, 화학공업, 비금속 무기재료, 고성능 탄소섬유, 첨단반도체, 초전도 소재 등	
	4. 미래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미래 에너지 장비, 태양전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5. 미래공간	유인 우주비행, 달탐사, 위성항법, 도심항공교통 심해작업 설비, 극지자원 탐사, 도시 지하공간 개발 등	
	6. 미래건강	세포 유전자기술, 합성생물학, 바이오육종, 5G/6G, 메타버스, AI 활용 의료서비스, 디지털 트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CHINA
SCIENCE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발 행 일 | 2026. 06. 29.

| 발행기관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발 행 처 | 주소 :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 갑12호
전자성과기빌딩 1308호(100015)
TEL : 86)10-6410-7876/7886
<http://www.kostec.re.kr>

